

추위질수록 발병 위험 '안면마비' 초기치료 놓치면 후유증 남아

건강 바로 알기 안면신경마비

백상철

상무365한방병원 한방안비인후피부과 전문의

밤과 낮으로 낮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환자가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가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의 하나인 벨마비의 경우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실제 날씨나 계절과 큰 영향에 관한 연구는 따로 없으나 차가운 날씨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부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안면신경마비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이나 입쪽에 평소보다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안면신경마비는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인 안면신경에 염증 등을 이유로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얼굴의 마비가 발생하기 수일 내지 하루 전 마비된 얼굴의 귀 뒤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비가 발생한 후 마비된 얼굴의 귀 뒤쪽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증상 초기 국을 먹을 때 한쪽으로 국물이 세거나 양치할 때 물이 경사진 방향으로 나가는 등의 증상을 먼저 느끼고, 눈이 감기지 않거나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인중선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웃었을 때 한쪽에서만 웃게 되는 등 얼굴 한쪽에서만 마비된 증상이 나타

면역력 저하... 눈·입 불편감 호소
발병 초기 스테로이드 복용 치료
천부 열자극 요법·물리치료 권장
근육 긴장 풀고 말초 혈류 순환 도와

나게 된다. 또 미각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청각이 과민해 지거나, 눈에 이물감이 들면서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비증상은 1-3일에 걸쳐 악화되고 일주일 정도까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후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는 평행기를 일주일 정도 거쳐 회복기에 들어가게 된다. 병의 초기에는 치료를 해도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이 질환의 필수적인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신경의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회복기에 들었을 때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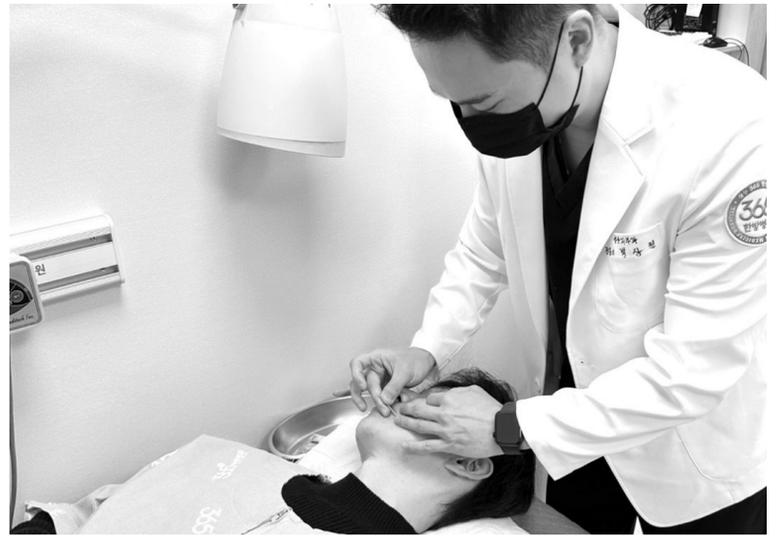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평행기에 근전도검사(EMG), 신경전도 검사(ENoG)를 통해 신경의 손상 정도를 파악해 예후를 예상할 수 있다. 신경 손상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1-2달 정도의 경과를 거쳐 회복하지만 신경 손

상 정도가 큰 경우에는 1-2년의 경과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면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완전 마비의 경우 20% 정도는 마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고령의 환자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 또 미각 저하 증상, 급속하고 완전한 마비인 경우, 회복기에도 회복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지연형 회복 환자는 효과적인 치료가 늦을 경우에는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안면마비 치료는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를 발병 초기에 복용하고 천부 열자극 요법과 물리치료 마사지 요법을 권장한다. 눈이 감기지 않은 경우 수면중 눈을 비비거나 자극을 통해 각막염이나 각막 찰과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대를 착용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는게 좋다.

한의학에서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구안와사(口眼喎斜)라고 칭한다. 신체가 허손한 상태에서 풍한(風寒)의 사기가 침입하여 기혈이 정체되어 일어난 것으로 본다. 침입한 풍한의 사기를 몰아내고 견인된 근육을 풀어주며 특히 목어깨, 후두부까지 가는 근육을 풀어주어 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신경의 회복을 돕는다. 이를 위해 신경변증에 사용하는 오공약침, 신경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자허거약침 등의 약침치료가 안면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에 직접 침 및 전침 치료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인식을 돕는다. 또한 근육의 마사지를 통해 마비된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말초로 가는 혈류의 순환을 도와 치료 효과를 도모한다.



상무365한방병원 백상철 한방안비인후피부과 전문의가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안면신경마비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많이 개발되어 있다.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고 빠른 치료가 좋은 예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얼굴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환

자 자신의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되고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는 증상의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의 발생시병원의 내원을 통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 이겨낸 환아들 '완치잔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은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제24회 소아암·백혈병 희귀질환 '완치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소아암과 백혈병, 희귀질환을 이겨낸 24명의 환아에게 일일이 완치 메달을 걸어줬다. 이어 진행된 힐링 음악회에서는 환아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다.

또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환아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백일장 시상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축하선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지역돌봄미 기부천사와 사랑을 맺는 해피트리에서는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함께 축하했다.

환아의 완치사례담과 부모의 사례담을 듣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호지킨림프종을 이겨낸 한 환아는 "항암 치료 후에 면역 수치가 오르지 않아서 너

무나 힘들고 많이 울었지만, 교수님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며 "시간이 지나 지금은 공부와 운동, 맛있는 음식도 잘 먹으며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국훈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우리 의료진은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며 "완치 아이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서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희조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그동안 힘든 투병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아이들과 가족분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긴 치료과정을 잘 견뎌준 여러분과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대병원, 심방세동 신의료기술 '펄스장 절제술' 국내 최초 도입

전남대학교병원이 29일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신의료기술인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PFA)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부정맥팀(박형욱·윤남식·이기홍·김유리 교수)은 지난 10월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펄스장 절제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펄스장 절제술을 시작한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 혈액의 흐름이 불규칙해 혈전이 생기고, 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이에 전남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설치한 펄스장 절제술은 심장에 가느다란 관을 밀어 넣은 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상 부위를 찾아 전기장을 발생시켜 이를 한 번에 없애는 기술이다.

기존 치료법인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냉각 풍선도자 절제술의 부작용인 식도 천공이나 횡격막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 더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기존 기술보다 훨씬 빠르며 재시술률과 재입원률이 낮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안전한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직업연구원은 지난 13일 펄스장

절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기도 했다.

박형욱 순환기내과 부정맥팀장은 "펄스장 절제술 시스템의 도입으로 호남지역 심방세동 환자들이 최신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심방세동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추가연구를 통해 환자안전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1982년 전기심장생리검사를 시작하고, 1994년 전극도자절제술을 적극 도입, 현재 심방세동 시술을 포함해 약 7100건이 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병원 '고객의 소리 우수친절사례 전시회'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오는 1월3일까지 2관 1층 로비에서 '2024년 고객의 소리 우수친절사례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고객만족팀에서 주최한 2024년 고객의 소리 우수친절사례 전시회는 고객의 칭찬 및 감동 사례를 직원 및 환자들에게 공유하고 친절한 병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올 한해 고객의 소리함,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접수된 친절사례 중 우수한 10건을 선정해 전시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칭찬, 불편 등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조선대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분기마다 고객의 소리를 통해 스마일 교직원 및 부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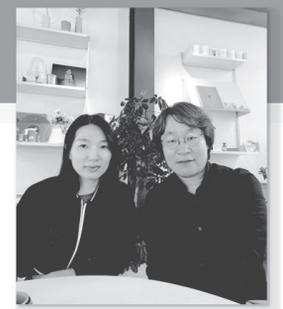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